

마음의 벽 허물고 가입 문턱 낮춘 편집자들의 소모임

저작권, 교정교열, 인문학 모임 등 특화된 모임 주력...

실질적인 정보교환과 체계적인 학습으로 편집자의 자질 키워

편집자들을 중심으로 한 특화된 소모임이 증가일로에 있다. 이들 모임은 세미나 등 구체적인 학습을 통해 전문적인 저작권 공부부터 출판제작 전반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다양한 출판 노하우와 정보를 교환한다. 이는 편집자들이 스스로 자질을 키우는 데 발 벗고 나섰음을, 또 절대적으로 재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출판계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건강하게 발전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출판은 한 나라의 지식체계를 구축하는 중요 산업이다. 또한 오늘날처럼 급변하는 출판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선 끊임없는 자기갱신의 노력과 재교육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어려운 출판계 현실을 감안할 때,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투자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출판인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자질을 키우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전문적인 저작권 학습부터 출판제작까지 아울러

최근 이런 움직임을 이끌고 있는 주역은 출판포털사이트 '북에디터'(www.bookeditor.org)다. 북에디터 출판 동호회 방에는 현재 저작권, 편집실무, 교정교열 모임 등 10개의 동호회가 조직돼 있다.

저작권연구모임(이하 저연모)은 북에디터 '편집자 초대석'에 참여했던 저작권 전문가 김기태 교수(세명대 미디어창작과)의 제안으로 구성됐다. 김교수를 비롯해 편집자, 프리랜서, 서점관계자 등 10명의 회원과 객원 회원 3명이 맹활약중이다. 대표를 선임하지 않는 공동체 형태로 운영하는데, 저연모의 회원인 학교재 편집부 이옥란 과장은 "편집자들이 대부분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번역

출판계약 등 실무에 어려움이 많았다. 모임은 매월 셋째주 토요일 열린다. 1차로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을 마쳤고,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10여회의 주제모임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교정교열연구모임(이하 교열모)은 지난해 5월 북에디터 출판동호회에 이름을 올렸다. 교열모가 다른 모임과 차별되는 건 온라인 활동에 주력한다는 것. 열린 모임을 지향하기 때문에 비회원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 2~3년차 편집자들이 많이 접속한다. 게시판에 꾸준히 글을 올리는 회원은 5~6명 정도다. 교열모를 이끌고 있는 삼인 편집부 변정수 차장은 "주로 게시판을 활용해 일정한 텍스트를 검토하고, 실무에서 부딪치는 다양한 문제를 함께 토론한다. 앞으로 그동안 논의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한다.

출판제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출판제작모임(이하 출제모)은 책의 기본 내용이나 장르, 용도 등에 따른 제작을 연구하기 위해 구성됐다. 회원은 주로 편집자들인데 표지디자이너와 영업자도 참여하고 있다. 리더 없이 공동체 형태로 모임을 이끌고 있어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열리는 정기모임이 출제모의 운영위원회 역할을 한다. 출제모의 연락책

을 맡고 있는 열린기술의 양상모씨는 "모임을 통해 제작과정부터 마케팅까지 폭넓게 논의한다. 그동안 혼자만 알고 있던 출판경험들을 다양하게 나눌 수 있어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편집실무자를 위한 분야별 동호회 개설돼

지난해 2월 북에디터에 동호회 방을 개설한 편집실무모임(이하 편집실모)은 회원들이 대부분 30대 초반의 2~5년차 편집자들이다. 처음엔 10명으로 출발했는데, 그동안 식구가 22명으로 늘었다. 정기모임은 2주에 한번씩 연다. 처음 몇 달 동안은 편집실무 이론을 공부했고, 미체택 원고로 실제 회원들이 다른 기획과 편집으로 책을 만드는 실무과정을 거쳤다. 지금은 주제도서를 선정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장정, 제목뽑기, 편집디자인 등을 토론한다. 편집실모 대표인 월간 《좋은생각》 박재호씨는 "편집실무는 워낙 변수가 많고 범위가 넓어 학습만으로 실력을 키웠다고 할 수 없지만, 모임을 통해 각 출판사의 노하우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편집실모가 다양한 출판분야의 편집자들이 모여 편집과정 전반을 논의한다면, 아동물편집자모임(이하 아편모)과 인문학편집자모임(이하 인편모)은 아동물과 인문학으로 주제의 폭을 좁히고 깊이를 더했다.

아편모는 지난해 2월 구성돼 현재 25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매월 셋째주 금요일에 열리는 정기모임에 평균 20여명이 참여할 만큼 회원들의 열의도 뜨겁다. 아동물편집자를 비롯해 디자이너와 일러스트레이터, 인터넷서점 아동물담당자 그리고 일반인까지 회원들의 면면도 다양하다. 정기모임은 회원들이 최근에 만든 책 가운데서 주제도서를 선정해 기획 및 편집방향 등을 논의하는 종합적인 책 품평회장이다. 아편모 총무를 맡고 있는 을파소의 김남중씨는 "처음엔 9명으로 출발했는데, 점점 회원이 늘어나 5~7명씩 관심 분야를 나눠 소모임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고 말한다.



편집자들이 실무자 중심의 특화된 모임을 통해 자질을 키우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편집자대회 워크숍 장면.

인편모는 복에디터에 출판 동호회가 생기면서 틀을 마련했다. 회원은 30명. 그 가운데 평균 15명이 세미나, 강좌 등 정기모임에 참여한다. 회원들은 주로 인문학 편집자들이고, 평균연령은 30대 초중반. 정기모임은 격주간으로 열리는데 세미나 방식은 주제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지난해는 서강대에서 열린 '표현 인문학' 논쟁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여했고, 주제도서를 선정해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그리고 전문가를 초빙해 동양사 강좌, 마르크스 강좌 등을 마련하기도 했다. 인편모의 반장을 맡고 있는 솔출판사 강명훈씨는 "인문학에 대한 내공을 쌓는 데 중점을 둔다. 편집자들 사이의 적극적인 정보교환과 인간적 교류도 주요한 목적"이라고 말한다.

최근에는 경제경영편집자모임(가칭, 이하 경영모) 구성을 위한 준비도 한창이다. 새로운 모임을 준비하고 있는 더난출판사 강현규 과장은 "출판사 안에 갇혀 있는 시각을 좀더 넓혀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앞으로 정보 공유와 시장흐름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둘 생각"이라며 모임 개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후배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

1989년 여성편집자 네명이 구성한 한국여성편집자클럽(이하 여편클)은 편집자 모임 가운데 가장 역사가 깊다. 회원자격은 '편집경

력 5년차 이상의 여성'으로 조금 까다로운 편인데, 현재 편집자·기획자·출판인 54명으로 구성된 거대 모임으로 성장했다. 여편클은 회원들에게 꼭 필요한 주제를 선정해 강사초청, 회원 사례 발표, 워크숍 등의 형태로 모임을 진행한다. 여편클의 13대 회장인 샘터 오연조 기획출판부장은 "후배 편집자들을 위해 편집자 교육, 자기개발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중이다. 또 1993년부터 진행해왔던 '여성편집자가 뽑은 좋은책' 선정사업을 되살리기 위해 여성부에 여성발전기금을 신청했다"고 말한다. 사계절 강담실 대표, 현암사 형난옥 주간 등이 모임의 초창기 멤버인데 지금도 적극적으로 후배들을 끌어주고 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교환으로 열악한 출판문화 개선을 위해 함께 고민하자는 뜻으로 시작한 서울편집인클럽(이하 서편클)은 편집자모임의 만형이다. 1997년 1월 창립멤버 13명이 구성했는데, 현재 회원은 23명. 대부분 경력 10년차 이상, 나이는 30대 중후반의 중견 편집자들이다. 서편클 5대 회장인 월간미술 오창준 기획출판부장은 "중견 편집자로서 후배들에게 뭔가 해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편집인대회를 시작했다. 1~2회는 서편클 단독으로 편집자수련회란 이름으로 개최했고, 3회는 편집인대회로 이름을 바꿔 여편클, 복에디터와 공동 주관했다. 앞으로 편집인대

회를 편집자들의 대동 한마당으로 더욱 알차게 키워갈 생각"이라고 말한다.

마케팅 역량 향상시키는 영업자 모임도 있어

영업자 모임으로는 출판마케터들의 모임(이하 출마모)이 있다. 출마모는 열악한 출판마케팅 분야에 기초적인 DB를 구축하고 회원들의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자는 뜻에서 결성했다. 회원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영업자들이다. 출마모는 현재까지 '향후 5년 동안의 각 분야별 베스트셀러 트렌드 분석과 조사' '다양한 유통경로 조사와 유통업체 매출액과 특성조사'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기초조사가 끝나면 구체적인 마케팅 방법론을 연구할 예정이다.

'북치는 사람들'과 '책의 바다로 간다'는 한겨레문화센터 수강생들의 모임이다. 북치는 사람들은 북디자인 정병규의 강의를 듣고 못 다한 공부와 친목을 나누기 위해 2기 수강생이 중심이 돼 구성했다. 현재 30대 전후의 전·현직 출판인 3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의 모임은 주로 인문학 세미나 형태로 진행했는데, 현재는 사진모임, Objet Trouve 등으로 세분화했다.

책의 바다로 간다는 책 읽기 모임으로 디자이너와 편집자 등 5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지의 편집공학》 읽기와 '인식의 지도 그리기'를 마쳤고, 현재는 철학·인문학 기초 개념 정리를 위한 '안개걸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이 밖에 소모임으로 30대 초중반 여성편집자 5명으로 구성된 '수요 인문학 산책'과 궁리, 푸른역사, 청어람미디어, 마음산책 등 다섯명의 편집자 출신 오너들 모임인 '광화문팀' 등이 있다. —박옥순 기자